

좀비가 나타났다!

본 기사는 가상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했습니다.

말도 안 돼, 좀비라니! 뉴스에 온통 좀비 관련 속보뿐이야.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뭘 준비해야 되는 거야?

글 이슬재(자유 기고가) *그림 이창우



정체를 드러내라, 좀비

- 이름: 좀비
- 별명: 살아 있는 시체
- 무기: 강력한 이빨, 기다란 손톱, 고약한 냄새
- 발생 원인: 좀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좀비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걸어 다니는 시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도 몰라! 터벅터벅 걸으며 살아 있는 사람들을 찾아 해매는데, 그러는 동안에도 몸은 계속 썩어가고 있지. 그르렁그르렁 가래가 끓는 듯한 신음 소리를 내고, 무지무지 고약한 냄새도 풍겨. 응? 살아 있는 사람들을 왜 찾아다니냐고? 모조리 잡아먹으려고!

좀비가 소름 끼치게 무서운 이유

좀비에게 잡아먹히는 것도 무섭지만 우리를 더욱 공포에 떨게 하는 건 바로 좀비 바이러스야.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누구나 좀비가 되거든. 좀비에게 물리거나 긁히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피 같은 체액이 묻기만 해도 전염된다는 말이 있던데..... 너무 무서워. 일단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우리도 눈 깜짝할 사이에 좀비로 변하고 말 거야.



어쩌다가 좀비가 생겨났을까?

좀비(zombie)라는 말은 아프리카에서 온 것으로 생각돼. 신이나 귀신 따위를 일컫는 콩고어 '은잠비', '좀비'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지. 먼 옛날, 좀비는 부두교라는 종교의 주술사가 조종하는 '움직이는 시체'를 일컫는 말로 쓰였단다. 주술사가 마술을 써서 시체들을 깨어나게 한 뒤 농장의 노예로 부렸단나? 이들은 생각을 할 수 없고 의지도 갖지 못해서 주술사의 뜻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며 혹독하게 일했어. 그래서 옛날에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 좀비가 된다고 믿기도 했지.

잠깐! 우리 뇌에 좀비 유전자가 있다고?

사람이 죽은 뒤에 뇌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포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지? '좀비 유전자'라 불리는 이것의 진짜 정체는 신경 아교 세포(glia cell). 미국의 한 연구진은 사망한 사람의 뇌에서 신경 아교 세포가 성장해 긴 팔 모양의 부속물을 만드는 것을 발견했지. 산소 결핍이나 뇌졸중 같은 뇌 손상을 치료하는 것이 이 세포의 임무임을 감안하면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뇌에 좀비 같은 세포가 있다니 정말 신기해!

좀비를 알아보는 법 이렇게 생겼으면 좀비야!

머리 어떤 좀비는 머릿속이 들여다보이기도 해. 머리가 많이 분해돼 있기도 하고.

머리털 딱이 진 상태야.

눈 눈알이 튀어나온 경우도 있어.

입 푸르스름한 침을 흘리고 있어. 물거나 잡아먹은 사람의 살점이 붙어 있기도 해.

피부 죽은 사람에게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회색빛이야. 때에 따라 푸르게 보이기도 하고 초록색에 가까울 때도 있어. 곳곳에 피부를 갉아 먹은 구더기가 보이기도 해.

손톱 길게 자라 있긴 한데 깨진 부분도 많아.

차림새 옷이 전체적으로 해져서 누더기 같아.

기타 냄새가 어쩌나 고약한지 쓰레기통이 걸어오는 듯해. 몸 곳곳에 때까지 덕지덕지 끼여 있다 보니 깔끔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





좀비 파헤치기

지금 이곳은 얼마나 위험할까? 체크 리스트

- 이웃들이 중요한 물건만 부랴부랴 챙겨서 갑자기 집을 떠난다. 곳곳에 빈집 속출! ☐
- 초대형 쓰레기통이나 썩은 고기에서나 날 법한 지독한 냄새가 주위에서 스멀스멀 풍겨 온다. ☐
- 누군가 사람을 물어뜯는다는 소식이 텔레비전이나 소셜 미디어에 퍼지고 있다. ☐
- 거리에 그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내고 느릿느릿 떼를 지어 걸어 다니는 무리가 있다. ☐
- 가족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핏기 없이 질린 얼굴로 자꾸만 나를 물려고 한다. ☐
- 누군가가 발을 질질 끌며 내 방으로 어기적어기적 걸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

혹시 4개 이상의 항목에 체크했다면 지금 당장 짐을 챙겨서 떠나야 해! 어물쩍거리다가는 언제 갑자기 좀비와 맞닥뜨릴지 몰라. 만약 체크한 항목이 4개가 안 된다면 정말 다행이야. 아직 시간이 있는 거니까 대비를 하면 되거든. 좀비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좀비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자.

특기를 살리는 좀비들

좀비에게도 내로라하는 강점이 있어. 그러니 저렇게 단번에 세상을 휩쓸지. 우선 좀비들은 아주아주 큰 무리를 지어 다녀. 느릿느릿한 움직임에 압도적인 규모로 커버하는 셈이지. 생각해 봐. 발을 질질 끌며 두 팔을 앞으로 뻗고 나무늘보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좀비 하나가 우릴 따라온다면? 좀비 하나쯤은 무사히 따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렇게 느린 좀비도 수



백 수천이 모여 있다고 가정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도망을 치다가 막다른 길로 들어섰을 때, 골목을 가득 채운 좀비들이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면..... 하, 다음 이야기인 생각할게.

게다가 좀비는 고통을 느끼지 않아. 아픔을 모르니 두려움도 없지. 살아 있는 사람을 물거나 잡아먹을 때 끈질기게 공격하는 것은 물론이야. 또한 청각이 무척 발달해 있어서 아주 작은 바스락 소리라도 나면 좀비 떼가 모두 일제히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헉!



기억하자! 좀비의 약점

아까 좀비의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말 생각나니? 살아 있는 시체답게 좀비는 수시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데다가 힘이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아. 생각이라는 것도 전혀 하지 못하고 머리를 아예 쓸 줄 모르지! 예를 들어 나무로 만들어진 문을 부술 수는 있어도 손잡이를 돌려 열지는 못해. 이런 좀비를 처치할 때 틱이 되기도 하는데, 좀비는 머리가 나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머리 부분이 약하단다. 기억하자, 좀비는 머리를 공격해야 한다는 것!

끝으로 들려줄 이야기는 사실 미신이라 좀 고민되긴 하는데, 좀비한테 소금을 먹이면 생전의 기억이 돌아오면서 자기 무덤으로 돌아간다는 속설이 있어. 그러고 나면 다시는 지상으로 나오지 않는단지? 믿고 싶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괜히 미신을 믿고 소금만 잔뜩 준비해 뒀다가 낭패를 보면 큰일이나니까 이견 못 들은 걸로 해 줘.

온 세상에 퍼진 좀비들



좀비의 매력이 뭐길래?

좀비를 공략하려면 전략이 필요해. 인터넷 연결조차 끊긴 상황,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위해 조심조심 좀비들의 눈을 피해 도서관에 다녀오자! 난 멀티미디어실을 맡을게, 자료 열람실을 부탁해.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다시 만나는 거야!

멀티미디어실을 뒤져 보니 좀비가 처음 등장한 영화는 1932년에 나온 <화이트 좀비>. 1968년에 나온 <살아 있는 시체들의 밤>을 보니,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는 1960년대가 되어서야 유명해졌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좀비 영화 <나는 전설이다>, <위드워즈> 등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고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좀비 콘텐츠를 좋아하는 걸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외모, 때를 지어 다니는 습성, 물리면 감염된다는 스토리까지 사람들의 흥미를 끌 만한 점이 한둘이 아닌 것 같긴 해. 오늘 아침까지 나를 꼭 안아 주던 엄마 아빠가 갑자기 좀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묘하지 않니? 무서운데 슬프고, 걱정되는데 오싹하잖아. 무엇보다 좀비를 직접 만나

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콘텐츠로 만들어서 보는 거야. 마음 편~ 히.

멀티미디어실에는 캐나다 몬트리올, 프랑스 파리,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 등 세계 곳곳에서 좀비 페스티벌을 즐긴 DVD 자료도 있지 뭐야? '세상이 무너지고 죽은 자들이 깨어나서 지구를 돌아다닌다'는 콘셉트의 페스티벌이라니, 무시무시하다. 영상을 보니 좀비로 분장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거리를 저벅저벅 돌아다니더군. 페스티벌에 참가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처럼 진짜 좀비가 돌아다니는 현실을 상상하진 못했을 거야. 그랬다면 저렇게 웃고 즐길 수 없겠지! 마지막으로 자료 열람실에서 찾아 온 K-좀비에 관한 책을 훑어봤어.

K-좀비를 만나다 125p

K-좀비란 대한민국 콘텐츠에 등장하는 좀비를 말한다. 기존의 좀비들과 다르게 움직임이 아주 빠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춤을 추는 듯한 역동적인 관절 움직임도 놀랍다.



314p

K-좀비가 주목을 받는 비결로는 실감 나는 특수 분장을 꼽을 수 있다. 부패 정도를 달리 하고 좀비가 되기 전 생활 모습에 따라 차이를 두는 등 분장에 세세하게 신경 썼다.



224p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대표적인 K-좀비 콘텐츠에는 영화 <부산행>, <반도>와 드라마 <킹덤> 등이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K-좀비에게는 저마다의 사연과 슬픔이 느껴진다고 한다.

717p

K-좀비의 움직임은 안무가들이 만들었다. 각각의 콘텐츠마다 좀비의 동작도 다르게 묘사했다. 심지어 숨소리조차 그 결과 차별화된 개성 가득 K-좀비가 탄생한 것이다.



©shutterstock

좀비로부터 살아남는 법 🔥

헉헉, 도서관에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으니 생존 장비를 곁에 두자. 지도랑 나침반은 좀비로부터 도망칠 때 아주 유용할 거야. 커다란 배낭에 물과 약간의 먹을거리를 넣어 두고, 손전등도 챙기자. 좀비의 체액이 얼굴로 튀면 안 되니까 안경이나 선글라스, 마스크도 준비해야 해. 지금부터 알려 줄 내용도 꼭 기억해.

길에서 좀비를 마주치면 무조건 반대쪽으로 뛰어! 일단 멀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야. 어쩔 수 없이 맞서야 한다면 아까 배운 대로 머리를 공격하자. 뇌를 파괴해야 좀비를 없앨 수 있어.

- 절대로 빛을 비추지 마. 좀비들은 빛에 이끌려.
- 한 공간에 머무르며 좀비를 피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물을 최대한 많이 설치해서 좀비의 공격을 늦추자. 간단한 장애물만 세워도 좀비들의 접근을 잠시나마 막을 수 있어. 구덩이 같은 함정을 파도 잘 빠지긴 하는데, 좀비가 기어 나오기를 워낙 잘해서 좀…….
- 헤드폰이나 이어폰은 절대 금지야. 주위 소리에 쫓긋 귀를 기울여야 하니까 말이야. 그르렁거리는 괴상한 소리, 발을 속속 끄는 소리가 나지 않는지 집중해!
- 언제 어디서든 쉴! 조용히 해야 해. 좀비는 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거든. 작은 방울이라도 딸랑거리는 순간에는 “우리 여기 있어!” 하고 좀비에게 알리는 꼴이 될 테니, 그런 일만은 기필코 막아야 해.
- 반대로 소리를 이용해 좀비를 멀리 쫓을 수도 있어. 소리에 예민한 만큼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기도 쉽지. 수많은 좀비에게 둘러싸였다면 반대편에 보이는 유리창이나 철판에 돌을 던져 봐. 그러면 좀비들이 죄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비틀비틀 움직일 거거든? 그 틈을 타서 재빨리 달아나면 돼!

집 안에 숨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집 안의 모든 문과 창문을 잠가. 창문이나 문은 판자를 대고 못을 박아 고정해.

수도가 고장 날 수 있으니 마실 물을 미리 준비해.

몸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비밀 장소여야 해.

좀비의 침입에 대비해 탈출 동선을 미리 짜 뒀.

이 정도면 좀비에 맞설 준비가 다 된 것 같아. 저 멀리 좀비 떼의 모습이 보이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떠올리며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잠깐! 좀비에 열광하는 이유, 알고 가자

‘좀비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있어. 좀비로 인해 세상에 닥친 큰 재앙을 일컫는데,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분투하는 힘을 다하여 싸우거나 노력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요즘 큰 인기지. 인기의 비결은 좀비가 주는 색다른 공포야. 먼저 부두고 의식의 희생자를 모티브로 했기에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지. 또한 미지의 전염병이라는 설정은 각종 감염병과 사투를 벌여 온 인류에게 더욱 생생하게 다가와. 실감 나는 두려움에 두근두근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다가 사건이 해결되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편안함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지. 좀비의 외모도 인기에 한몫해. 인간과 너무 닮은 모습을 보면 무섭고 이상하게 느껴지거든. 낯선데 익숙한 외모에 공포감이 배가 된다고.

한편 사람들은 좀비 콘텐츠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는 상상도 해. 좀비는 물론이고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대응법을 미리 익혀 두었다가 유용하게 쓸 수도 있잖아?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좀비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 문서인 ‘콘옵8888’을 작성하기도 했다. 단지 내부 훈련용일 뿐이라고 하지만, 국가 문서에 좀비가 등장했다는 것만으로 흥미롭지 않니? 📖

📖 **별책 부록 ‘초등독명 더하기’**, 3쪽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실력 쌓기!

